

보도자료

| | | | |
|----|--|----|------|
| 제목 | 백남준아트센터 | | |
| 문의 | 행사/취재 : 이상아 학예사 t.031-201-8549 m.010-4739-5307 | | |
| 자료 |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 | |
| 배포 | 2024. 8. 26. | 쪽수 | 총 3매 |

백남준아트센터-리움미술관 〈에어로센 백팩 워크숍〉 운영



“지금 당장 탈탄소화하자! 공기에 대해 반란”, ‘멸종 반란’ 운동의 일부로 에어로센 공동체, 2019, 베를린, 독일
사진: 토마스 사라세노 스튜디오
에어로센 제공

- ▶ 백남준아트센터, 9월 7일 리움미술관의 퍼블릭 프로젝트 《에어로센 서울》 〈에어로센 백팩 워크숍〉 참여
- ▶ 세계적인 예술가 토마스 사라세노와 에어로센 파운데이션이 함께 하는 《에어로센 서울》
- ▶ 미술관의 경계를 확장하는 증장기 퍼블릭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의 일환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리움미술관과 협력하여 기후 위기 속 생태를 돌아보고 대안적 미래를 제안하는 <에어로센 백팩 워크숍>을 9월 7일 개최한다. 워크숍은 리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센 서울》의 일환으로 7월 10일부터 9월 21일 까지 서울, 경기, 수원,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한국의 지역 미술관과 리움미술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에어로센 서울》은 독일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사라세노(b.1973)가 시작한 학제 간 커뮤니티 '에어로센(Aerocene)'과 함께 하는 생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오늘날 환경과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다. '에어로센'은 기후 환경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 지리학자, 철학자, 과학자, 기술자 등이 모인 커뮤니티이며, 현재 36개국, 152개 도시, 6개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토마스 사라세노가 만든 '에어로센 백팩' 휴대용 키트를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고 띄워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어로센 백팩은 헬륨, 수소, 태양광 패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태양열만 사용하는 에어로솔라 조형물의 휴대용 비행 키트로, 화석 연료 없이도 하늘을 부유한다. 워크숍 참가자는 돌봄과 생태사회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 후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고 휴대용 비행 조형물을 직접 하늘로 띄운다. 워크숍은 각 지역과 서울을 연결할 뿐 아니라 지역과 국경을 넘어 환경에 대한 목소리로 연대한다.

워크숍은 에어로센 멤버로부터 훈련 받은 리움미술관 워크숍 팀이 에어로센 세계관과 키트 사용법을 소개하는 1시간의 실내 활동과 1시간의 야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실내 활동에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이슈 혹은 미술관이 가진 생태 관련 주요 의제를 함께 고민하여 하나의 슬로건으로 제작하고, 야외 활동에서 조형물과 함께 상공에 띄운다. 야외 활동은 기상 조건, 우천 시 혹은 1시간당 풍속이 10km 이상인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 백팩 키트를 조립하고 슬로건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대체 할 예정이다. 기후 변수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워크숍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접수 방법은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 참조

별첨 1. 토마스 사라세노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태생 예술가로, 생명체 및 생명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지식 분야를 재고하고, 생명의 그물 속에서 다양한 존재 양식이 어떻게 서로 진동하는지를 인식하게 한다.

20년 이상 전 세계 지역 사회, 과학 연구자 및 기관들과 협력해 왔으며, 탄소 배출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종내 및 종간 기후 정의를 위해 무세오 에어로솔라(Museo Aero Solar, 2007-), 에어로센 재단(Aerocene Foundation, 2015-), 아라크노필리아(Arachnophilia) 등 오픈 소스의 학제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라세노의 작업은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2023), 뉴욕 셰드(2022), 파리 팔레 드 도쿄(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2017), 뒤셀도르프 K2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미술관(2013), 뉴욕 메르토폴리탄 미술관(2012), 베를린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2011) 등 전 세계 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제 17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2020), 제 53회와 58회 베니스 비엔날레(2009, 2019) 등 수많은 행사와 비엔날레에 참가했다.

별첨 2. 에어로센 소개

국경이 없고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왼 쪽] <무세오 에어로솔라>, 이탈리아 프라토 페치 미술관 《테리토리아 4. 위대한 도약》, 2009. 사진: 야니스 엘코
[오른쪽] <무세오 에어로솔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21하우스 《에어로솔라 되기》, 2015.
사진: 스튜디오 토마스 사라세노, 에어로센 제공

에어로센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이자 비영리 재단이다. 화석 연료나 리튬, 수소에 의존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생태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인 에어로센은 지구와 그 우주적 생명 망과의 윤리적 재동맹을 지향한다.

느린 행동주의와 날씨에 따른 상호의존성에 뿌리를 둔 에어로센은 기후 정의, 생태사회적 에너지 전환, 인간과 인간 이상의 인권, 대안적 인식과 감지 방식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어로센 작업은 분야와 국경을 초월하여 예술, 기술, 정의,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2007년부터 에어로센은 무세오 에어로솔라와 함께 성장해 왔으며, 2015년에 정식 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이 여정 동안 에어로센은 워크숍, 페스티벌, 국제 전시회와 오픈소스 'Do-it-Together' 도구 제작을 통해, 공연과 시위 현장에서 에어로솔라 조형물을 시연하고 띄워보며, 학제간 커뮤니티의 참여로 36 개국 152 개 도시, 6 개 대륙에서 구현되었다.